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8년 7월 12일 기사입니다.

[피플&피플]세계 커피시장 주름잡는 서른다섯 청년 CEO

강릉 이동희 `로움' 대표
대통령 인도 경제사절단 참여
샘플 계약 성과 … 해외사업 날개
中·베트남·라오스·태국 진출도

서른다섯의 청년 CEO인 이동희 (주)로스팅컴퍼니 로움(이하 로움) 대표의 인도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해 인도 바이어와 현지 시장 조사 및 마케팅을 위한 샘플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인도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청년벤처사업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거둔 쾌거다. 이 대표는 "인도 경제사절단에서 인연을 맺은 바이어들이 견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커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카페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2012년 강릉에서 창업한 이 대표는 커피용품 및 장비판매, 카페창업, 프랜차이즈 컨설팅, 원두커피 제조, 로스팅, 원두 수출, 눈꽃빙수 파우더 생산, 바리스타 아카데미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커피머신, 그라인더, 믹서 등 카페장비 판매 및 렌털을 시작으로 커피 로스팅과 토털카페창업, 컨설팅 등으로 사업으로 확장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해외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권과 매장 환경에 알맞게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경쟁력을 자랑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2014년 로움이 컨설팅한 눈꽃빙수전문점이 중국에 진출해 30개의 설빙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했다. 2016년에는 라오스 경제사절단으로 비즈니스상담회에 참가해 20만 달러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세계시장으로 도전할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중국 텐진의 퓨전 한식 사업과 라오스 한국 전통 디저트카페 `빙고' 1호점

등을 발판 삼아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남궁현기자 hyunng@